산문밖의 禪

신호그룹 이순국 회장

"기업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환자치료하듯 부실기업 살려내
"기업소유는 집착…필요로하니 경영할뿐"
'사원집단주주제' 선언 "가족상속 없다"
자택을 智德寺로…집무실에 경전 가득

지난 9일 아침 7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 조찬을 겸한 경제인들의 모임에서 신호그룹 이순국(李淳國·54)회장이 '기업경영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강의 주제 '성공사례'에서 보여주듯이 李회장은 일단 경제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날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李회장 자신은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18개, 해외 10개 등 모두 28개의 계열사에 지난해 매출액 1조 4천억원인 대그룹의 회장. 李회장은 '단지 기업체가 자신을 거쳐갈 뿐이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갔다.

회사의 말단 봉급쟁이로 출발한 李회장은 77년 부도가 난 중소제지업체 동방펄프를 인수하면서 경영자가 되었다. 이후 오늘까지 30여개의 쓰러져가는 기업을 인수하여 흑자기업으로 키워냈다. 이런 연유로 그에게는 언제나 '마이더스의 손-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왕으로 손만대면 황금으로 변함' '인수합병(M&A)의 귀재' '부실기업 조련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기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듯 존엄한 기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고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영에 뛰어들었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냈다는 것이다. 물론 명의가 죽을 사람은 미리 알듯이 무조건 기업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을 말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기업인수가 아니라 단지 관리차원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李회장은 이렇게 말은 기업에 두가지 경영방침으로 활력을 불어넣는다. '멍석 경영론'과 '24시간 경영생활화'.

"예전에 우리는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영자가 멍석을 깔고 구성원이 신바람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멍석 경영론입니다."

실제 이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했을 때 '점령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의 문제점은 그 기업 사람들이 잘알고 있고 문제해결도 결국 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李회장의 신념이다.

또한 부지런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놀 것 다 놀고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심보라는 것이다.

'기업 무소유' '기업 생명론' '더불어사는 삶'. 李회장에게서 나는 냄새가 눈물나도록 맵다. 이 냄새의 근원을 찾기위해서는 그의 생활 내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호그룹 회장실. 李회장의 집무실인 이곳은 사방이 경전과 경구가 쓰인 액자가 가득하다. 李회장에게 이 글귀들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늘상 독경으로 자신을 점검한다. '기업도 생명이 있다'는 정신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립됐다. 출퇴근이나 출장길에는 법문테잎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 이처럼 李회장은 자신의 기업경영관이 불교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위해 기업 경영을 하지않습니다. 회사를 키울생각도 없습니다. 산이 있어 그곳에 오른다는 어느 등산가의 말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 일을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李회장에게 뚜렷한 취미는 없다. 다만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는다. 산은 사찰을 참배할 수 있어 더할 나위없는 취미이자 신행생활인 것이다. 어떤때는 집근처에 있는 청계산을 하루에 두 번 넘기도 한다.

李회장은 매일 새벽 4시30분이면 일어나 1시간 가량 조깅을 한다. 10년전 어느날, 새벽 조깅길에 른득 집을 절로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 이생각은 회사에서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사회초년시절 11번의 이사 끝에 마련한 화곡동집을 지덕사(智德寺)라는 사찰로 바꾸고 전세방으로 옮기고 말았다.

李회장 부부의 신심이 불자로서의 최고 원력인 사찰건립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李회장이지만 그에게도 생각만 해도 가슴뭉클한 계열사가 하나 있다. 94년 11월에 설립한 '신호페이퍼 타일랜드사'.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1백 42㎞ 떨어진 싱부리시 근교(태국 최대 강인 챠오프라야강에서 8백m 거리)에 신문용지 생산공장을 세운 것이다. 이 회사는 태국 유일의 신문용지 공장이면서 신호그룹 해외진출의 발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李회장에게는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보람이 마음 든든하게 한다.

신호그룹의 창업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주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87년, 李회장은 자신의 주식 2/3를 내놓아 '사원복지기금'을 설립했다. 94년에는 전재산을 털어 '사원집단주주제' 실현을 선언했다. 94년 한국강관의 경영권이 李회장에게 맡겨졌지만 이제껏 주식을 한 장도 소유하지 않았다. 소유와 경영을 사원들에게 넘기고 가족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전문기업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윤리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다.

'소유하지 않고 경영할 뿐'이라는 李회장의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강연이 끝나자 어느 경영인이 물었다.

"창업자에게 기업은 자식과 같다. 내 것이라는 생각없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기업은 유한합니다. 단지 목숨까지 담보하여 경영에 전념할 뿐입니다."

이준엽 기자

진정한 사랑이란

문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천하기란 무척 힘들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결국 이기적인 사랑, 즉 '자기애'일 것인데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매도할 수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진문용·대구 서구 중리동〉

답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물에 빠진걸 보고 부모가 그냥 뛰어들 때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에는 가지가지 종류도 많지만 대체로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지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놓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착을 두고 그럽니다. 그건 다 자기 사랑이지요.

자비란 그야말로 한 점의 티끌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없이 주는 사랑은 자비에 가깝지요. 그런데 부모의 자식사랑도 때로는 자기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기대가 따른단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나 아님이 없다는 경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생사랑은 그야말로 저 풀벌레조차도 둘로 보지않는 사랑이기에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그건 일체가 나 아닌게 없을때, 내 자리 아닌게 없고 내 아픔 아닌게 없을 때라야 하는데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내가 어디서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로 들고 난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니까 진짜 사랑을 알려면 이 도리를 공부해서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성을 깨달으려면…

문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대자유인으로 사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실 것입니다만 불성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닫고나서도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답 말하고 묻고 생각하는게 다 생명의 근본이 있어서 가능하고 육신이 있어서 가능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들 몸뚱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지요? 우리들은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서말한 세가지가 종합해서 돌아가는 그 근본을 불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지요?

누가 한 선사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르쳐 줄께" 했더랍니다. 그래 가까이 다가가니까 주먹으로 한방 내리쳤고 "어이쿠" 하고 쓰러지니까 "이놈, 지금 어이쿠 한 놈이 누구더냐, 얼른 대답해봐라" 했더랍니다. 지금 나를 끌고 다니고 과거에도 끌고 다녔고 앞으로도 끌고 다닐 그 주인공이 바로 불법이고 불성이지 어디 딴데가서 찾으려느냐 하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말하고 행하고 듣고 마음내고 하는게 다 불성의 나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여여할줄 어찌 알았으랴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유마힐 거사에게 병문안 갔을때 하시는 말씀이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내 몸뚱이는 소우주나 다름없어서 중생 안에 또 수많은 중생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그 중생들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둘이 아니니 그렇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불성이 뭔지를 알고 싶거든 너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가령 불성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불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해서는 한방 먹인 것이지요. 한방 먹인 것도 불성의 나툼이고 "어이쿠" 한 것도 불성의 나툼이니 그 자리에서 네가 찾아보고 네가 맛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가끔 비유해서 말해줍니다만 저 바퀴가 구르려면 심봉(축)도 있어야 하고 바퀴 살, 테도 있어야 하고 힘도 가해져야 하는데 심봉은 가만히 있으면서 힘을 넣어주기만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본인 불성이 있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먹고 자고 말하고 자유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자유인이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듯 불성의 여여한 나툼인줄 안다면 그대로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왜냐? 그냥 다 놓고 가니까, 다 믿고 턱 맡기고 가니까 그대로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은 외면하고 밖으로 물질에만 매달리니까 불성이 뭐냐 했을때 뭔가 모양있는 것, 아니면 그려낼 수 있는 것 쯤으로 생각이 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주좌와가 다 불성이 있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불성은 거기서 찾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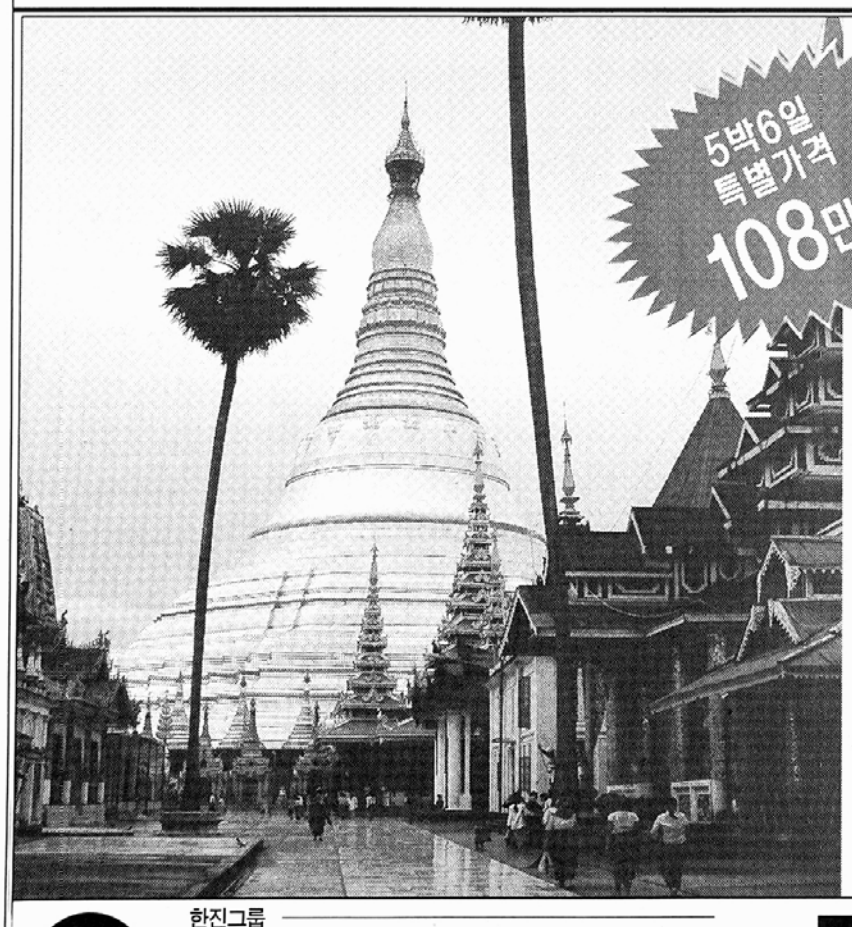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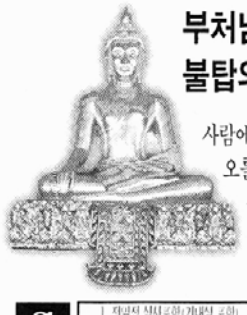
KATA 광고 심의필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02)779-6957



5박6일 특별가격 10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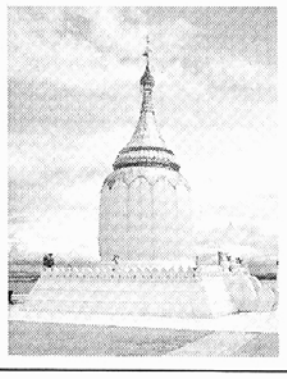
불기 2540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KAL 전세기 운항
(관계당국 승인조건)
1차:96.11.1~11.6 2차:96.11.5~11.10



부처님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비록 보화가 쌓인 산에 오를 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심의 손이 없는 사람은 삼보(불·법·승)를 만난다 할지라도 얻는것이 없으리라
- 심지관경 중에서



여행조건
1.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 포함)
2. 왕복공공관 이코노미석, 칠유버스 이용
3. 특급 및 일급5월 이상 시설 (2인1실 기준)
4. 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0명 이상 출발
5. 최고 1억원 보장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 전문투어 가이드 동행
※ 상기요금은 서울 김포공항 출발기준 요금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1일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양곤 향발. 미얀마 양곤의 랭글라돈 국제공항 도착 자낵공항우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중-기내식, 석-한식

2일 호텔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파간 향발. 도착우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으로 조성된 유적지 순례(쉐지곤, 쉐산도, 탓빈유, 아난다, 부파야, 틴로민로사원)
■HOTEL : 일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 호텔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도착 사가잉 이동 (1시간소요). 100여개의 파고다 순례우 만달레이 귀환 쿠소도, 마하간다요수도원, 마이라무파고다 등 순례우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 호텔에서 아침공항우 항공편으로 양곤 이동, 전일 양곤지역순례 (마하위자야, 보타타웅파고다, 차욱뜻지와불, 마하시수도원)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5일 호텔에서 아침공항 오전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 순례. 오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경대법회 (퍼바에파고다) 및 한.미 불교대법회 우 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HOTEL : 기내박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6일 김포국제공항 도착
※ 성불하십시오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문체부 일반여행업8호

예약·문의 726-5763~6

후원: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미얀마 종교성 / 주한미얀마대사관

부산: 463-2115 / 대전: 252-2034~5 / 대구: 426-6706~8 / 광주: 228-0041~2 / 경주: 745-3070~3 / 제주: 42-7217